

【 국 어 】

1.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것은?

- ① 기와집 ② 지우개
- ③ 선생님 ④ 개살구

2. 밑줄 친 단어의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름에는 달이 밝다. [박따]
- ② 마루에 등불이 켜져 있다. [등뽕]
- ③ 음식이 앞마당에 차려져 있다. [암마당]
- ④ 여기저기 다니며 막일이라도 하자. [마길]

3. ㄱ, 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우리 부모님께서는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신다.
 ㄴ. 우리는 이곳이 교통사고 발생의 빈도가 잦음을 전혀 몰랐다.

- ① ㄱ과 ㄴ 모두 명사절이 안겨 있다.
- ② ㄱ과 ㄴ 모두 안긴문장 속에 목적어가 있다.
- ③ ㄱ과 달리 ㄴ에는 안긴문장 속에 관형어가 있다.
- ④ ㄴ과 달리 ㄱ에는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4. 주체 높임이 실현되지 않은 문장은?

- ① 할머니는 시장에 가셨다.
- ② 선생님을 모시러 교무실에 갔다.
- ③ 원래 어머니의 시력은 좋으셨다.
- ④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다.

5. 밑줄 친 어휘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나에게도 손을 벌렸다.
- ② 자동차가 가로수에 부딪쳤다.
- ③ 이따가 3시에 집 앞에서 만나자.
- ④ 과녁을 맞춘 화살이 하나도 없다.

6. <보기>와 같이 발음할 때 적용되는 음운 변동 규칙이 아닌 것은?

〈보 기〉

홀이불 → [혼니불]

- ① ㄴ 첨가 ② 두음법칙
- ③ 자음동화 ④ 음절의 끝소리 규칙

7. 띄어쓰기가 틀린 문장은?

- ① 내가 ∨ 믿을 ∨ 것은 ∨ 오직 ∨ 성실함뿐이다.
- ② 그녀는 ∨ 사실을 ∨ 아는 ∨ 대로 ∨ 설명했다.
- ③ 이 ∨ 약초는 ∨ 감기를 ∨ 낮게 ∨ 하는데 ∨ 쓰인다.
- ④ 사람들은 ∨ 그를 ∨ 자기밖에 ∨ 모른다고 ∨ 놀렸다.

8.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극은 극 양식을 대표한다. 비극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발전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비극은 고양된 주제를 묘사하며,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된다. 그러나 비극의 개념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 변하고 있다. 그리스 시대의 비극은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운명의 요건으로 인하여 파멸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 냈다. 근대의 비극은 성격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로 인하여 패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비극은 그 본질적 속성이 역사적이라기보다 철학적이다. 비극의 주인공으로는 일상적인 주변 인간들보다 고귀하고 비범한 인물을 등장시킨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른바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운명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비극의 관객들은 이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공포와 비애를 체험하면서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같은 주장에 의해서 비극을 인간의 삶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결말이 불행하게 끝나는 것이 좋다고 보았으나, 불행한 결말이 비극에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그리스 비극 가운데 결말이 좋게 끝나는 작품도 적지 않다.

- ① 비극적 결함에 의해 파멸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담은 것이 근대 비극이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비극이 모두 불행한 결말로 끝이 나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③ 그리스 시대 비극의 특징은 성격이나 상황의 문제로 인해 패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관객들은 비극을 통해 비범한 인간들의 운명에 대한 공포와 비애를 경험하면서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된다.

9.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의 옷밥을 언고 들먹는 저 고공(雇工)아, 우리 집
 기별을 아난다 모로는다. 비 오는 날 일 업슬 지긋 쏘면서
 니르리라. ㉠ 처음의 한어버이 사름스리 흐려 흘 직,
 인심(仁心)을 만히 쓰니 사름이 절로 모다, ㉡ 플 썩고
터을 닷가 큰 집을 지어 내고, 셔리 보십 장기 쇼로
 전답(田畓)을 기경(起耕)하니, ㉢ 오려논 터밭치 여드레
그리로다. 자손(子孫)에 전계(傳繼)하야 대대(代代)로
 나려오니, 논밭도 죠커니와 고공(雇工)도 근검(勤儉)터라.
 저희마다 여름지어 가을여리 사던 것슬, 요스이 고공
 (雇工)들은 험이 어이 아조 업서, 밥사발 크나 야그나
 동웃시 죠코 즘나, ㉣ 므음을 듯호논 듯 호슈을 식오논
듯, 무슴 일 감드러 흘긋할긋 흐느는다.
 - 허전, 「고공가(雇工歌)」

도르래는 둥근 바퀴에 튼튼한 줄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감아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도르래는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
 이다. 그렇다면 두 도르래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고정 도르래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꾸어 주는 도르래로 줄을 감은 바퀴의
 중심축이 고정되어 있다. 힘의 이득을 볼 수는 없지만,
 힘의 작용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정 도르래를
 사용할 때는 줄의 한쪽에 물체를 걸고 다른 쪽 줄을 잡아
 당겨 물체를 원하는 높이까지 움직인다. 이때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은 줄 하나가 지탱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들어
 올리는 것과 비교해 힘의 이득은 없으며 단지 고정 도르래
 때문에 줄을 당기는 힘의 방향만 바뀐다. 하지만 물체를
 높은 곳으로 직접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줄을 아래로 잡아
 당김으로써 물체를 올리는 방법이 훨씬 편하다. 또한
 물체를 1미터 들어 올리기 위해 잡아당기는 줄의 길이도
 1미터면 된다.
 한편 움직 도르래는 힘의 이득을 보기 위해 사용한다.
 움직 도르래를 사용할 때는 도르래에 줄을 감고 물체를
 들어 올린다. 움직 도르래는 도르래 축에 직접 물체를
 매달기 때문에 줄을 당기면 물체와 함께 도르래도 움직인다.
 이때 물체를 지탱하는 줄은 두 가닥이 된다. 물체의 무게는
 각 줄에 분산되어 두 사람이 각각의 줄을 잡고 동시에
 들어 올리는 효과가 난다. 따라서 움직 도르래 한 개를
 사용하면 물체 무게의 2분의 1의 힘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물체를 1미터 들어 올리기
 위해 당겨야 하는 줄의 길이는 물체가 올라가는 높이의
 두 배인 2미터이다. 왜냐하면 물체가 1미터 올라갈 때
 물체를 지탱하는 두 줄도 동시에 1미터씩 움직여야 하는데,
 줄을 당기는 쪽으로 줄이 감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움직 도르래를 이용하여 물체를 들어 올리면 줄의 길이는
 물체가 움직여야 하는 높이의 두 배가 필요하게 된다.

<보 기>

이 작품은 조선 왕조의 창업부터 임진왜란 직후의
 역사를 농사일이나 집안 살림에 빗대는 방식을 활용
 하고 있다. 특히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는 요즘 고공들의 행태를 질책하고 있다.

- ① ㉠: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창업한 사실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② ㉡: 나라의 기초를 닦은 조선 왕조의 모습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③ ㉢: 조선의 땅이 외침으로 인해 피폐해진 현실과 관련 지을 수 있다.
- ④ ㉣: 신하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상황과 관련지을 수 있다.

16. 다음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이름은?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름은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맞닿아서 나는 소리가 한 개 들어 있습니다. 파열음이나 파찰음은 없고 비음이 포함되어 있어서 발음하기 부드럽습니다. 제 이름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는 가장 높았다가 낮게 내려가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민애 ② 진주 ③ 하은 ④ 정빈

※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를 낳는 터전은 유목적이고 도시적인 환경일 터인데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은 정착민, 농경의 세계였다.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아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풍경, 관계, 면면에서는 선물을 주고받을 일이 없었다. 식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다든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 그것도 아버지에게서. “이건 네(게 주는) 선물”이라고 아버지가 말했기 때문에 그건 선물이 되었다. 개였다. 정확하게는 ㉠ 강아지였다.

아버지는 어느 날 점퍼 속에 강아지 한 마리를 넣어 왔다. 난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 호떡을 싸는 종이 봉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어린 시절 내게 개는 닭처럼 잡아먹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닭 이상으로 좋아할 것도 없는 동물이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이라는 유목적이고 도시적인 환경으로 전학 온 내게 아버지가 선물이라며 준 강아지는 내가 그때까지 보아 온 가축이 아니라 처치 곤란하고 ‘낮선 것’이었다. 그 이전에는 물론 그 뒤로 아버지는 한 번도 내게 선물을 준 적이 없다.

겨울밤이었고 ㉡ 아버지가 일평생 처음으로 선물이라며 종이 봉지 속에 든 강아지를 내게 줄 때 술 냄새가 났다. 나는 종이 봉지 속 강아지의 목덜미를 붙들며 현관 바깥 종이 상자 속에 내려놓았다. 가축은 집 안에 들일 수 없는 게 원칙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강아지를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많은 식구 중 내게 주는 선물이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그날 밤 집에 들어오면서 부딪힌 첫 번째 식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의 선물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겼다. 하지만 기분은 묘했다. 어쨌든 아버지에게서 처음 받은 선물이었으니까.

한밤중에 나는 선물이 우는 소리에 잠을 깬다. 내 옆, 옆과 그 옆, 그 옆에 자고 있는 그 누구도 잠을 깨거나 일어나지 않았다. 방을 나가서 바깥에 있는 화장실로 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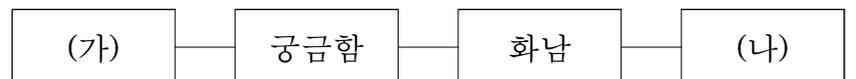
위해 문을 열었을 때 선물이 우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사실 오줌이 마려왔던 것도 아니었다. 선물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건 다리를 덜덜 떨며 킁킁거렸다. 나는 배가 고파서 우는 걸로 알았다. 부엌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뭘 가져다줄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저녁 내 뭇으로 받고 아껴 먹다 남겨 둔 백설기를 가지고 나왔다. 접시에 물을 담아 ㉢ 백설기와 함께 큰맘 먹고 내밀었다. 선물은 내 선물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저 킁킁거리며 다리를 떨며 울 뿐이었다. 나는 무시당한 데 대해 화가 났다. 선물을 철회했다. 백설기를 집어 들면서도 물은 그냥 두었다. 울다 보면 목이 멎지도 모르고 물은 그럴 때 먹으면 되니까.

방으로 돌아와 누웠을 때에도 선물의 울음소리는 계속 해서 들려왔다. 천둥 치듯 아버지는 코를 골았지만 선물의 가느다란, 여린 킁킁거림은 정확하게 나의 청각을 자극하고 잠 못 들게 했다. 결국 다시 밖으로 나갔다. 철회했던 선물을 다시 주고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선물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하자 울음이 그쳤다. 선물은 너무 어려서 백설기를 먹을 수 없었다. 물을 마시지도 않았다. 다만 관심과 연민에 반응할 수 있을 뿐이었다. 관심과 ㉣ 연민의 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울음이 시작됐다. 결국 나는 내복 바람으로 날이 밝아 오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강아지를 선물했다. 나는 강아지에게 백설기를 선물했다. 밤이 아침을 선물하듯 강아지는 내게 난생처음 경험하는 연민의 감정을 선물했다.

- 성석제, 「선물」

17. ‘강아지’에 대한 ‘나’의 감정 변화로 (가), (나)에 가장 알맞은 것은?



- | | |
|-------|-----|
| (가) | (나) |
| ① 즐거움 | 불쌍함 |
| ② 난처함 | 사랑함 |
| ③ 즐거움 | 사랑함 |
| ④ 난처함 | 불쌍함 |

18. 윗글의 내용에 비춰 볼 때 ㉠~㉣ 중 내포하는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근 들어 ‘뉘이다’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쓰고는 한다. 물론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다. 가령 인터넷상에서 호기심이나 관심을 발동시키는 기사 제목을 보고 그 기사를 읽어 보았지만, 그럴 만한 내용이 없었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 즉 ‘뉘이다’라는 말은 기사 제목이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어 그것을 몰았지만 소득 없이 기만만 당하였다는 의미이다. ‘뉘시질’은 특히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나)

캐나다의 매체 이론가인 마셜 맥루언은 “매체는 메시지이다.”라고 하였다. 매체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을 말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메시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언어는 물론이거니와 노동의 도구들조차 인간과 노동 대상 사이를 매개하는 물건이므로 매체에 속한다. 따라서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면 그것을 통해 인간의 활동 영역이 훨씬 더 확대되므로 ‘매체는 인간의 확장’이라고 했다.

(다)

매체가 가지는 능동적인 힘을 인정한다면, 매체가 단순히 메시지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거나 중립적일 수도 있다는 견해는 환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매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면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들도 자연 중립적일 수가 없다. 앞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신문 기사 제목의 ‘뉘시질’을 문제 삼았지만 인터넷 이전의 언론 매체들이라고 해서 모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 왔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

상업적이고 퇴폐적인 방송이나 기사, 자칫하면 국수주의로 흐를 수도 있는 스포츠 중계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윤 동기에 지배당하는 매체 회사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손바닥도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 없는 법, 상업화로 균형 감각을 상실한 방송이나 기사를 흥미롭게 보는 수용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남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욕망, 불행한 사건·사고들을 수수방관하면서도 그 전말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히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 집단의 열광 속에 파묻혀 자신이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보상받고 싶어 하는 수동적 삶의 태도 등은 황색 저널리즘과 ‘뉘시질’이 성행하는 터전이 된다. 바로 ‘우리’가 그들의 숨은 동조자일 수 있다.

19. 윗글로 알 수 있는 내용은?

- ① ‘뉘시질’은 남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는 행위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 ② 이윤 동기에 지배당하는 매체 회사들을 바로 상업적 방송의 ‘숨은 동조자’라 할 수 있다.
- ③ 신문 기사와 같은 매체 자료는 생산자의 주관적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
- ④ 매체 회사들이 생산한 매체 자료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

20. 윗글에 드러난 설명 방식이 아닌 것은?

- ① 비교 ② 예시 ③ 정의 ④ 인용